

지장보살반가상

이 지장보살은 앉아 있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일반적으로 여정에 나선 승려의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이 불상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에 석장이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승려의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승려는 여행길에서 이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석장의 머리 부분에 달려 있는 고리에서 울려퍼지는 소리는 작은 벌레나 생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경고를 주고, 위험한 동물을 쫓아내는 동시에 마을 사람들에게 승려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또한, 이곳에 소장 중인 다른 지장보살과 마찬가지로 왼손에 보주(모든 선행이 담긴 보석)를 들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반가상은 높이 123cm의 목조로 양각 형식의 넓은 후광이 장식되어 있으며 헤이안 시대(794-1185) 후기인 11 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